

SAMSUNG 폴더블 vs 듀얼 LG ... 글로벌 무대에서 품팩터 격돌

(스마트폰 외형)

독 베를린 IFA2019 6일 개최

삼성,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관람객 직접 경험하도록 전시

LG, 업그레이드 '듀얼스크린' '프리 스탱 힌지' 기술 등 소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6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IT 전시회 'IFA 2019'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품팩터(외형)를 공개한다.

이들 두 회사는 '폴더블(접고 펼 수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두고 유럽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IFA는 가전이 주인공인 전시회지만 새롭게 공개하는 가전이 없는 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FA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공개한다. 전시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갤럭시 폴드.

/삼성



LG V50 씽큐에 듀얼 스크린 장착한 모습. /LG

만져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만나는 첫 폴더블 폰인 만큼 반응이 주목된다.

갤럭시 폴드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펼쳤을 때 7.3인치, 접었을 때는 4.6인치로 인폴딩(안쪽으로 접는) 방식이다. 7.3인치는 삼성전

자 스마트폰 중 가장 큰 화면이지만 접었을 때 한 손으로 쉽게 조작 가능하다. 카메라는 총 6개가 탑재됐다.

갤럭시 폴드는 화면이 넓은 만큼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 성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접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복합 폴리머 소재를 개발해 기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 50% 정도 얇은 디스플레이를 완성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IFA에서 갤럭시 폴드를 공개한 후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오는 6일 한국, 미국, 중국에서 출시되며 국내에선 2일부터 한정 수량을 대상으로 선행판매를 시작했다. 출고가는 239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LG전자는 IFA에서 5G 스마트폰 신제품인 'V50S 씽큐' 과 새로운 듀얼스크린을 공개한다. 앞서 LG전자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듀얼스크린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듀얼스크린은 LG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한 탈착식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폴더블 폰처럼 두 개의 화면을 하나로 볼 수 있다. LG전자는 듀얼스크린을 두고

실용적인 형태의 폴더블 폰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용자는 듀얼스크린을 통해 각각의 화면에서 서로 다른 앱을 동시에 구동하거나 앱 하나의 UI를 화면 두 개에 확장해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듀얼스크린에 화면을 덮은 상태에서 완전히 펼친 상태까지 어느 각도에서나 고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 스탱 힌지'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닫힌 상태에서 날짜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알림창' 기능을 탑재했다.

'프리 스탱 힌지'는 노트북 등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신제품이 화면을 덮은 상태에서 완전히 펼친 상태까지 어느 각도에서나 고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LG전자는 듀얼스크린을 V50S 씽큐와 함께 구성해 판매할 계획이며 가격은 120만원 아래로 책정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전자, 협력사 1.4조 대금 조기지급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추석 명절 상생 노력을 구체화했다. 지난 2월 발표한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에 따라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에 1조4000억원 규모 물품 대금을 1~2주 가량 조기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10개 계열사가 함께 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협력사 자금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협력사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2011년부터 협력사 물품 대금을 월 4회 지급해 자금 유통을 도왔고, 3조4000억원 규모 지원 펀드를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협력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계에 반영했다.

삼성전자는 올 추석에도 지역과 상생하는 직거래 장터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자매마을에서 생산한 농축산품을 임직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이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차, 협력사 납품대금 1.4조 조기지급

추석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통해 상생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4181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4개 회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협력사들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0일 일찍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들도 추석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 현대차그룹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약 122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추석 연휴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한편, 추석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소외이웃 및 결연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최첨단 혁신 에너지 절감기술 뽐낸다

'2019대한민국에너지대전'

삼성 '에너지 워너상' 제품중심 구성 LG, 에너지 사용분야 공간별 전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일부터 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에너지대전'에 참가해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기술을 선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에너지대전은 3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관련 종합 전시회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발표된 '올해의 에너지 워너상'을 수상한 제품을 중심으로 전시장을 구성했다.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4Way 카세트(천장형 실내기가 최고상인 '에너지 대상 및 국무총리상'을, DVMS 고온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에너지 워너상'으로 선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무풍 시스템에어컨 4Way 천장형 실내기는 풍량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균일한 바람을 구현하는 무료 설계, 열교환기·인버터 압축기 등 핵심 부품의 효율화를 통해 기존 제품 대비 냉방 효율은 최대 18%, 난방 효율은 27% 개선했다.

DVMS 고온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4세대 듀얼 플래시 인젝션 압축기 기술을 적용하고, 공기를 배출하는 유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삼성전자 부스(왼쪽)와 LG전자 부스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로를 개선해 열교환기 성능을 높였다. 이 제품은 최대 43도의 실외 온도에서도 냉방 성능을 100% 구현 가능하고, 최대 50도와 영하 25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우수한 냉·난방 성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전 모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공조 제품 외에도 ▲전기 레인지 인덕션 ▲에드워시 세탁기 ▲위터월 식기세척기 등 올해의 에너지 워너상을 수상한 제품과 ▲비스포크 냉장고 ▲무풍 큐브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LG전자는 180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국내 최대 출력과 최고 효율을 갖춘 네온 R, 태양광 모듈의 양면에서 빛을 흡수해 발전 효율이 높은 네온 2 등을,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전력변환장치(PCS), 전력관리시스템(PMS) 등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에너지 사용 분야를 상업 공간, 산업 공간, 주거 공간으로 구분해 전시했다. 상업 공간의 인공지능 듀얼 베인 실내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며 사용자에게 6가지 공간맞춤기류를 제공한다. 베인은 실내기에 부착된 날개이며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준다.

산업 공간의 무풍유 질러는 컴프레서가 유틸리티가 아닌 공기 혹은 자기력을 이용한다. 또 인버터 기술이 탑재돼 기존 제품보다 연간 운영비를 최대 2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주거 공간에는 교감형 인공지능을 탑재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휘센 씽큐 에어컨, 모든 방향에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고 정화해 깨끗한 공기를 다시 360도로 내보내는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등을 함께 전시했다. /구서윤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유튜브로 '퀴즈 토크쇼'

밀레니얼 세대와 적극 소통 위해 유튜브서 '디톡쇼' 본격 방송 시작

삼성디스플레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퀴즈 토크쇼 형식의 유튜브 프로그램 '디톡쇼(디스플레이 퀴즈 토크쇼)'를 제작, 8월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디톡쇼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

운 주제인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지식들을 퀴즈를 통해 쉽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일반인 패널이 시청자들의 눈높이에서 퀴즈를 풀면,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이 설명을 덧붙이는 구성이다. 편당 분량은 10분 정도이며 매주 금요일, 유튜브 삼성디스플레이 공식계정을 통해 공개된다. /구서윤 기자